

# 이차전지

Sector Issue Brief

2026. 7. 1

## Check Point

- 1~5월 EV 판매 증가율 둔화세 지속
- EV 향 배터리 각형 LFP M/S 확대 지속
- 회사별 EV향 판매 정체 혹은 역성장 유의

## 5월 EV향 배터리 data 점검

| Analyst 정경희 | khchung@ls-sec.co.kr

### 5월 EV(BEV+PHEV) 판매량 YoY 7%, 1~5월 누적 3%, '21년 이후 판매량 성장률 둔화 이어져

SNE Research의 5월 Global EV & Battery Monthly Tracker data에 따르면 글로벌 전체 EV(BEV+PHEV, HEV는 배터리 소모량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제외, 이하 동일) 판매량은 약 1.9백만대(YoY 7%, MoM 8%). 월별 판매량은 변동성이 크므로 1~5월 누적 기준 YoY 3% 성장에 그쳐. 이는 '21년 연간 110% 성장한 이후 57%, 33%, 26%, 22%를 거쳐 '26년 1~5월 기준 낮은 한자리수에 그쳐 EV 판매량 성장이 '26년 둔화되었음을 재확인. 지역별로 EV 취득세를 100%에서 50%로 감축시킨 중국('25년 판매량 기준 글로벌 M/S 64%)의 1~5월 10% 역성장, 북미 IRA 30D 일몰에 따른 28% 감소가 유럽과 기타 지역 성장에도 낮은 성장률 견인

이는 EV향 배터리 탑재량 증감에 직결. '25년 1~5월 배터리 증가율은 전년비 39%였지만 '26년의 경우 16%에 그쳐. EV 판매량과 동일한 수치가 아닌 것은 BEV, PHEV당 평균 소요량 차이가 크고, 모델별 차이가 있기 때문. 지역별 증감에서는 중국은 '26년 1~5월 12%로 양의 성장을 나타냈지만, 북미는 -24%로 배터리에서도 역성장 정도가 커. 이는 북미와 유럽을 주 타겟시장으로 하는 한국 배터리 수요에 부정적

### 1~5월 각형 M/S 81%로 각형 M/S 확장 지속, 한국 셀사에 부정적

배터리 타입에서 '20년 각형 M/S는 49%에서 '25년 80%, '26년 1~5월 81%로 확장 지속. 반면 원통형은 '18년 29%에서 '25년 9%, '26년 1~5월 8%로 연간 기준 하락. 각형은 중국의 M/S 독점적

1) 원통형: 글로벌 원통형 수요는 거의 TESLA향이므로 TESLA의 판매량과 M/S가 원통형 배터리 시장 확장의 주요 변수. 시장은 Panasonic과 LGES로 거의 양분되어 있으며, 지역별로 북미시장은 Panasonic, 그외 시장은 현재 LGES의 공급량 우위. 비북미지역에서 TESLA 판매량 변동성이 큰 것이 월별 LGES의 원통형 판매량, M/S 변동에 영향미쳐. TESLA의 경우 원통형 뿐 아니라 각형으로 타입을 이원화했고, 북미외 지역 판매량 변동성이 큰 부분 우려. 또한 '24, '25년 EV 판매 역성장 이후 '26년 판매량 회복하고 있는 점 긍정적이나 Model Y, 3가 노후화되고 있으며 회사 전략이 EV 판매에서 AI, 자율주행, 로보틱스로 전환, EV는 이제 거대한 AI 생태계를 지탱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하드웨어 기반 역할로 중요성이 축소된 점도 유의할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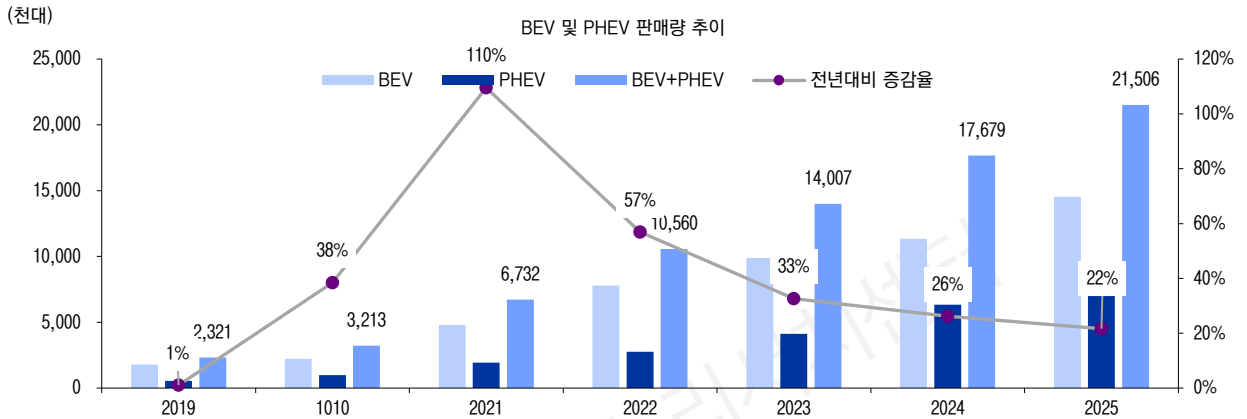
2) 파우치: '20년 28%를 기록한 후 '25년 11%, '26년 1~5월 누적 10%로 감소. 글로벌 파우치 시장은 LGES와 SK On으로 거의 양분. '22년 이후 양사 M/S 큰 변동 없어. 파우치 시장 성장성이 관건

3) 각형: 글로벌 성장의 대부분 흡수하며 '20년 49%에서 '25년 80%, '26년 1~5월 기준 81%로 확장세 지속. 중국 셀사들이 선점한 시장으로 한국 셀사중 SDI가 각형 생산. 그러나 SDI 각형 M/S는 '20년 12%에서 '25년 3%, '26년 5월 1.7%로 감소세 보여. 가성비가 중요한 각형에서 신규 고객 및 기존 고객 신규 모델 물량 흡수 낮은 점 우려

그러나 가장 유의할 점은 판매량 규모, 정체 혹은 역성장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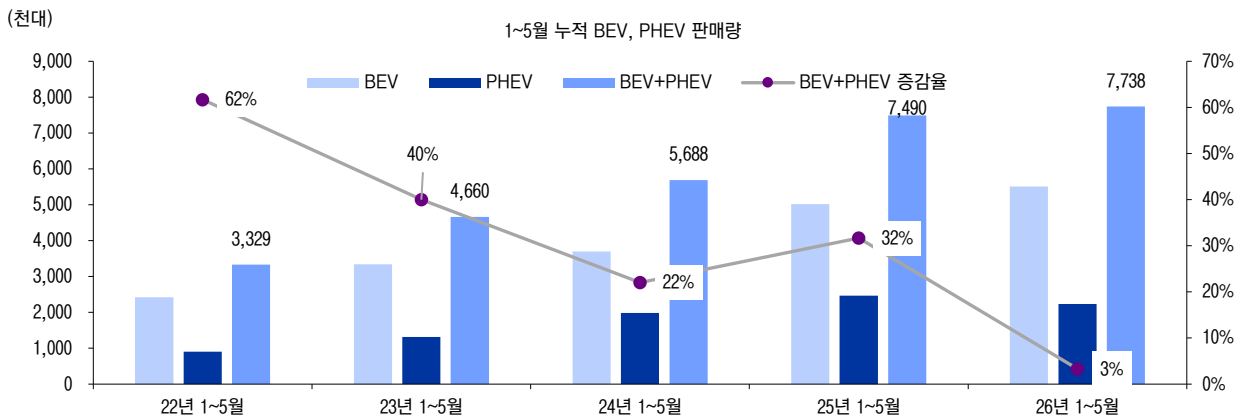
글로벌 M/S가 하락하는 것도 우려스럽지만, 판매량 자체가 성장하고 더 이상 Capa 확장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가동률 상승,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러나 현 시점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한국 셀사의 판매량 추이. 정체되거나 역성장. 특히 SDI는 '24년부터 EV향 배터리 판매량이 감소되고 있으며, SK On은 정체. LGES는 테슬라 비북미 판매량 변동 영향 커, 하지만 배터리 타입에서 원통형과 파우치 성장성 제약 문제 여전히 남아

**그림1 BEV, PHEV, BEV+PHEV 판매량, 전년대비 증감율 추이 ('17~'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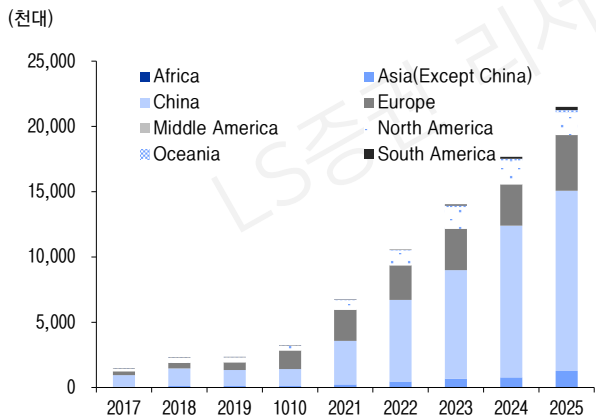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BEV, PHEV, BEV+PHEV 판매량, 전년대비 증감율 추이 (1월~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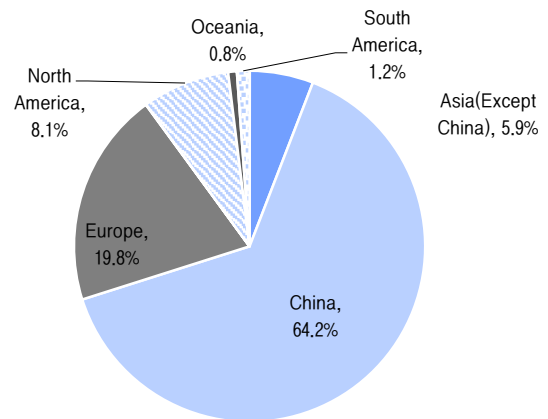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지역별 BEV+PHEV 판매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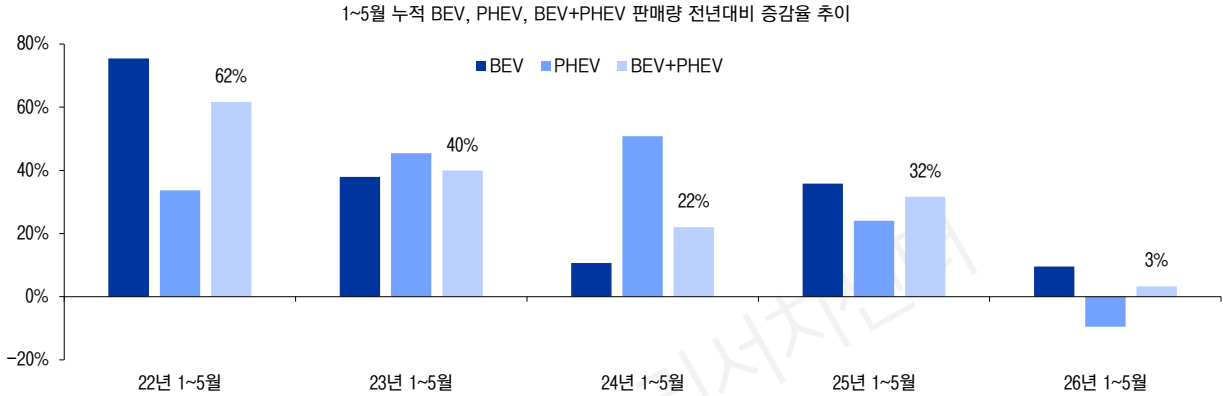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지역별 BEV+PHEV 판매량 M/S('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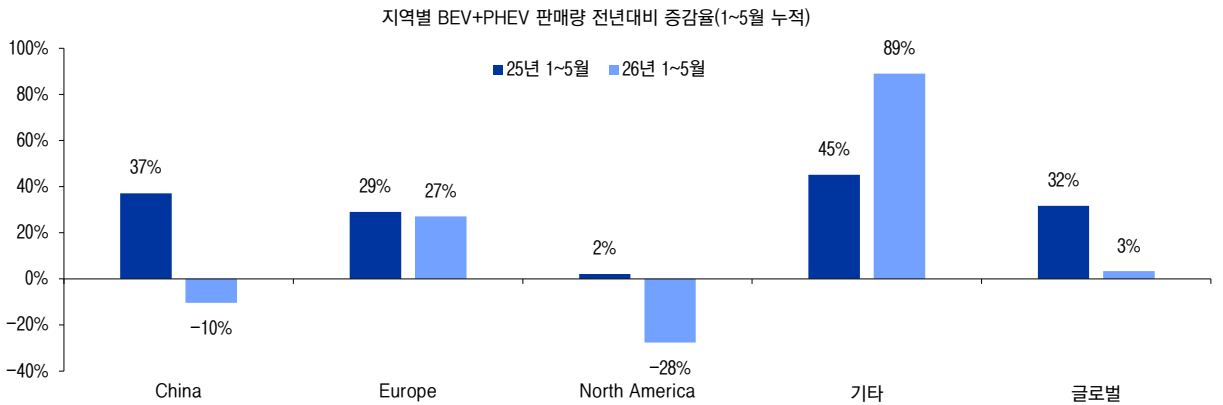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타입별 BEV+PHEV 판매량 전년대비 증감율(1~5월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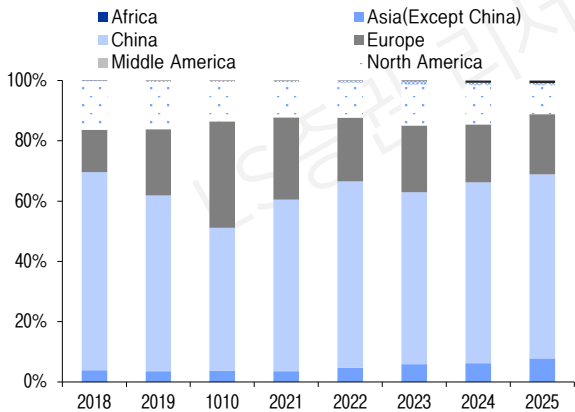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지역별 BEV+PHEV 판매량 전년대비 증감율(1~5월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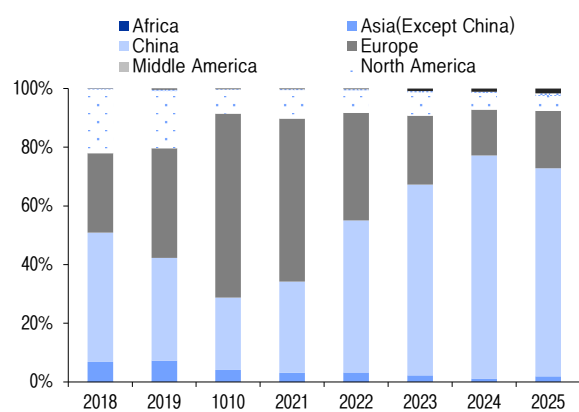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BEV 지역별 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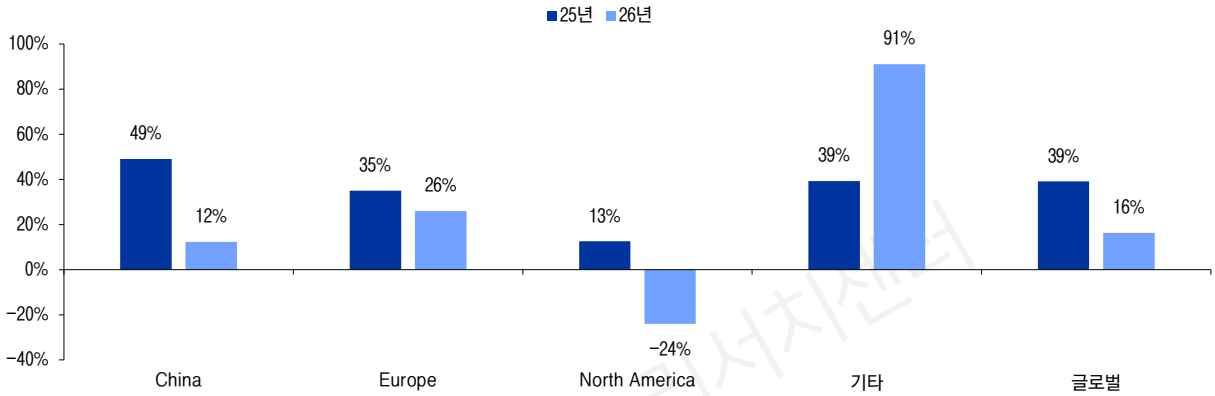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PHEV 지역별 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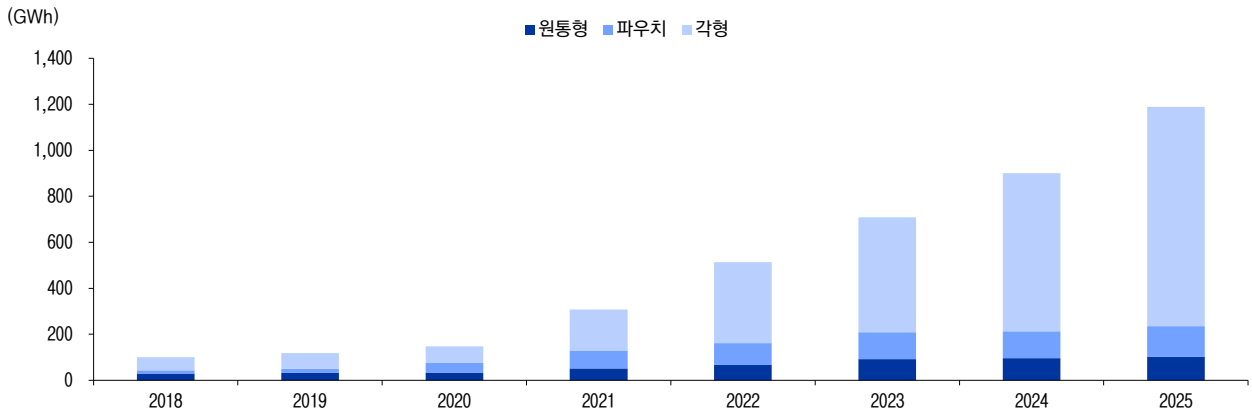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지역별 EV 향 배터리 탑재량 전년대비 증감율(1~5월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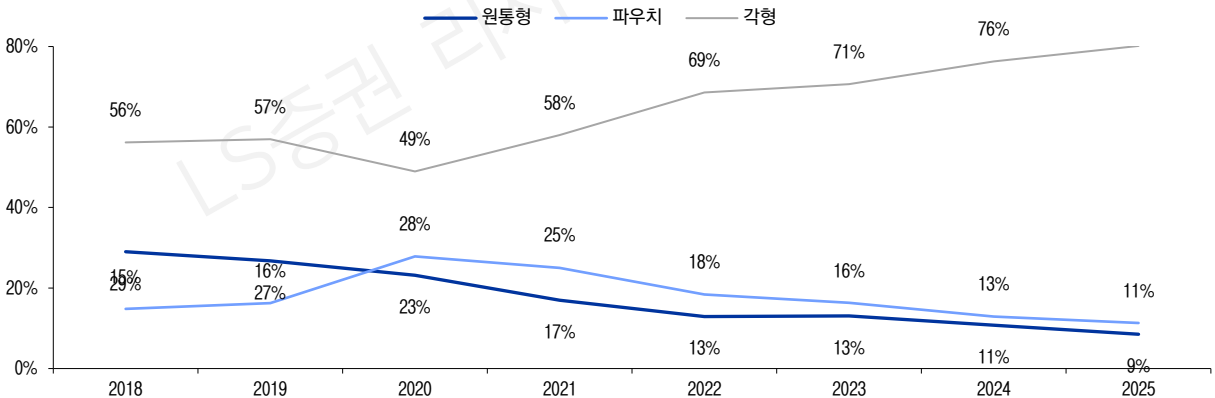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EV 향 배터리 타입별 탑재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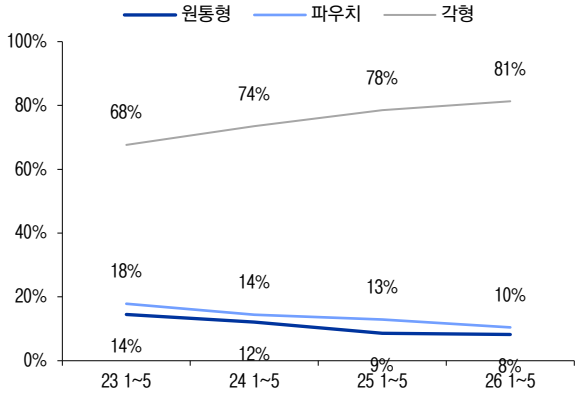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EV 향 배터리 타입별 M/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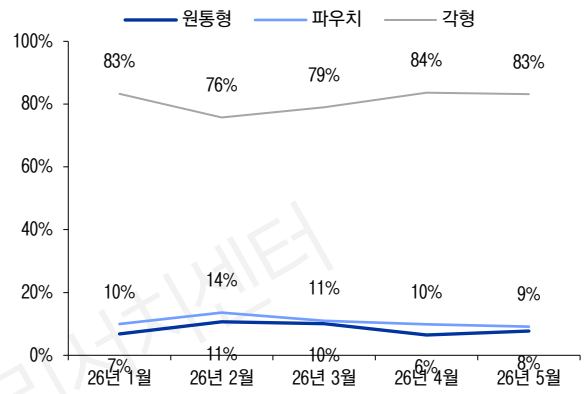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EV 향 배터리 타입별 M/S 추이(1~5 월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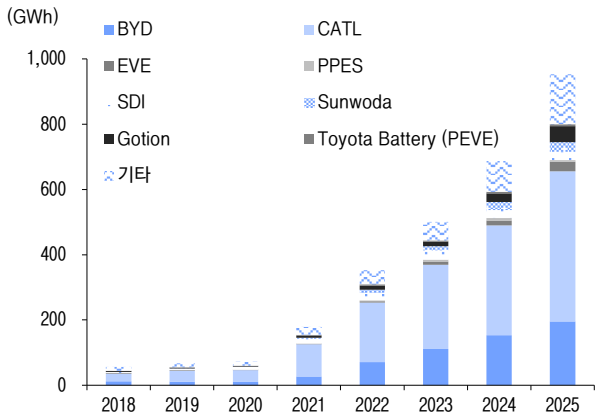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26년 타입별 M/S 추이(월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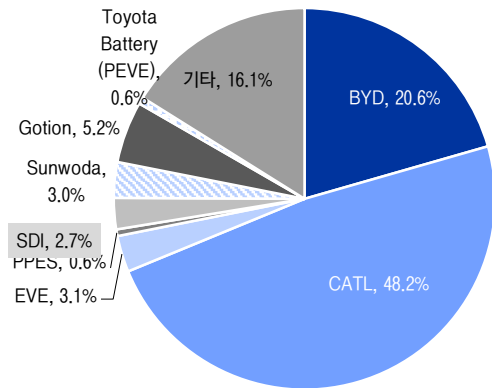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4 각형 배터리사별 EV 탑재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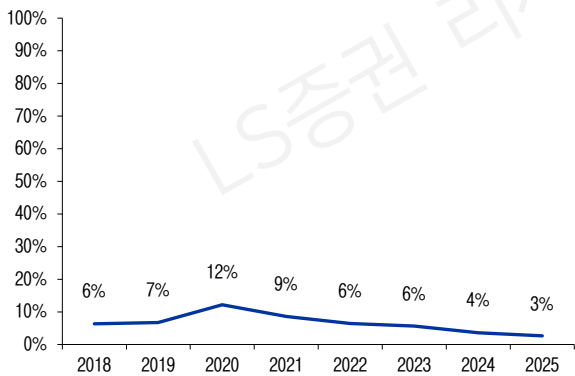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5 각형 배터리사 M/S('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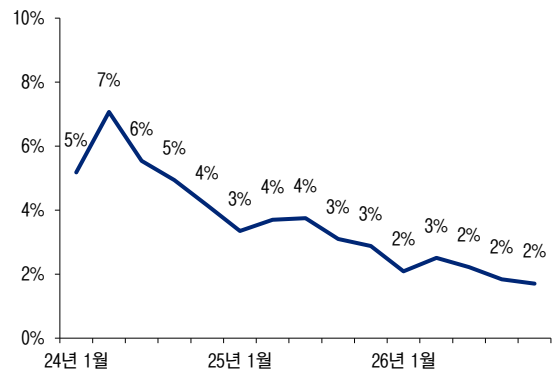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6 SDI 각형 M/S 추이(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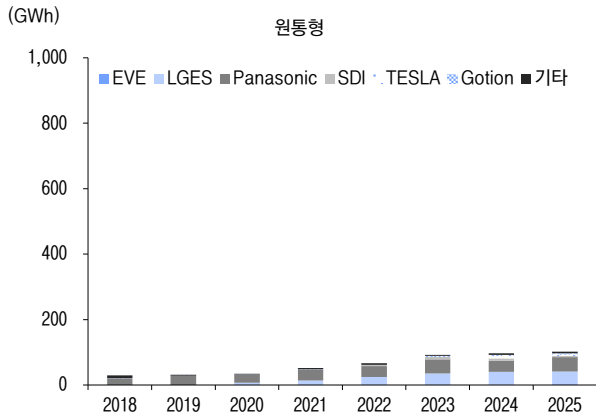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7 SDI 각형 M/S 추이(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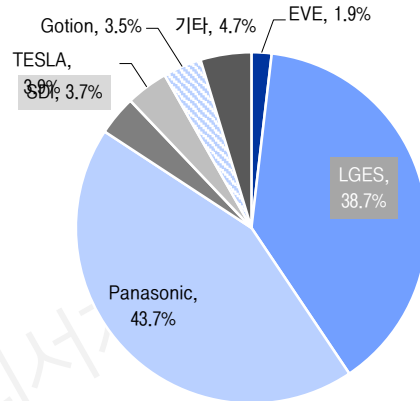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8 원통형 배터리사별 EV 탑재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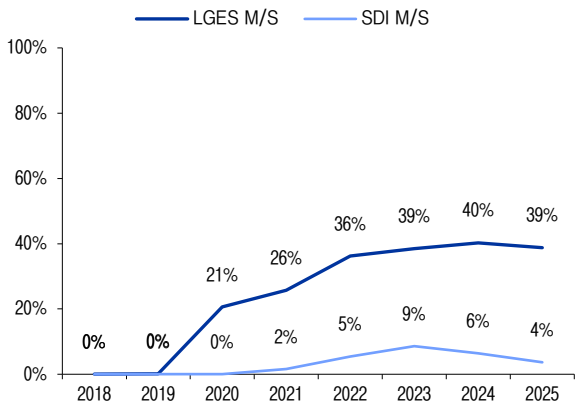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9 원통형 배터리사 M/S('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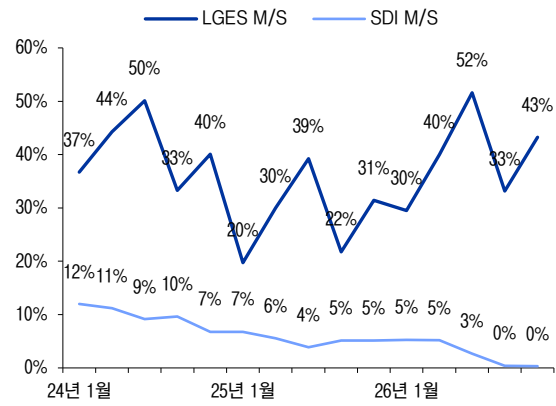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0 LGES, SDI 원통형 M/S 추이(연간)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1 LGES, SDI 원통형 M/S 추이(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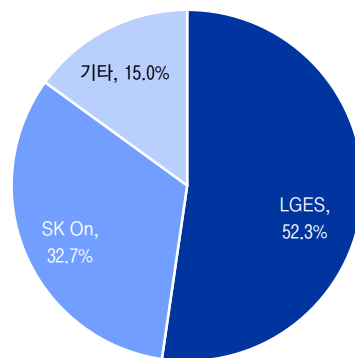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2 파우치 배터리사별 EV 탑재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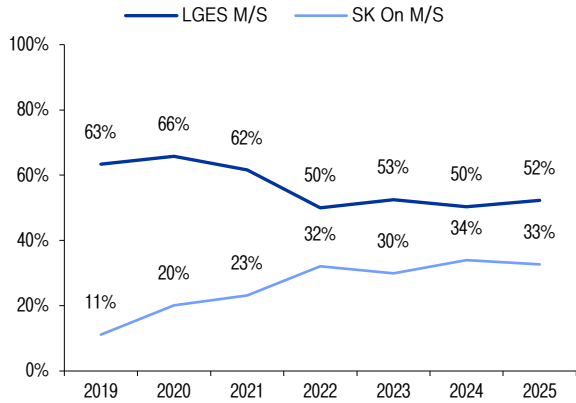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3 파우치 배터리사 M/S('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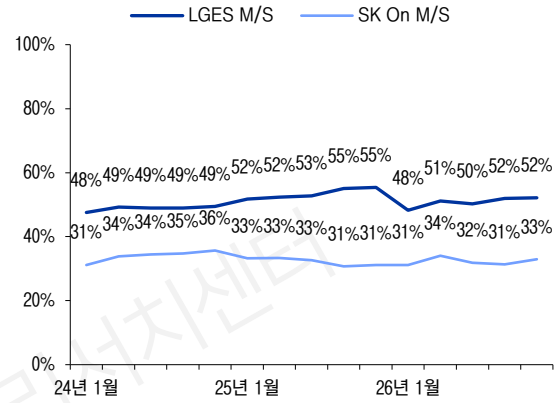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4 LGES, SK On 파우치 M/S 추이(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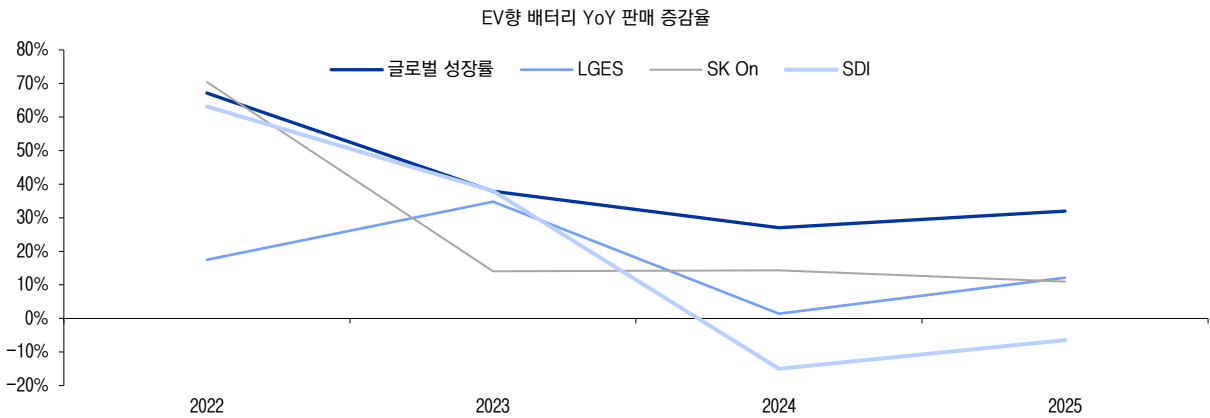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5 LGES, SK On 파우치 M/S 추이(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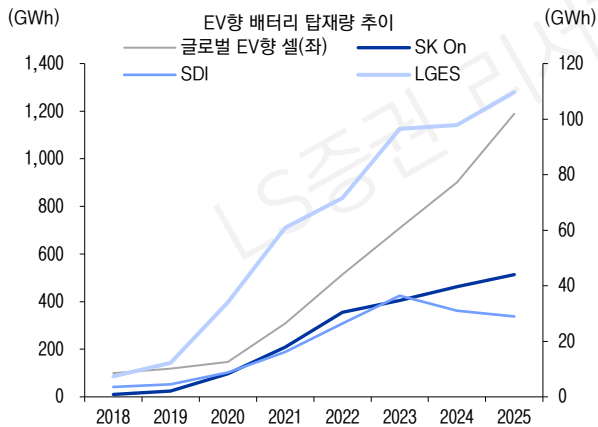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6 EV 향 배터리 YoY 판매 증감을 비교: 글로벌 vs 한국 셀 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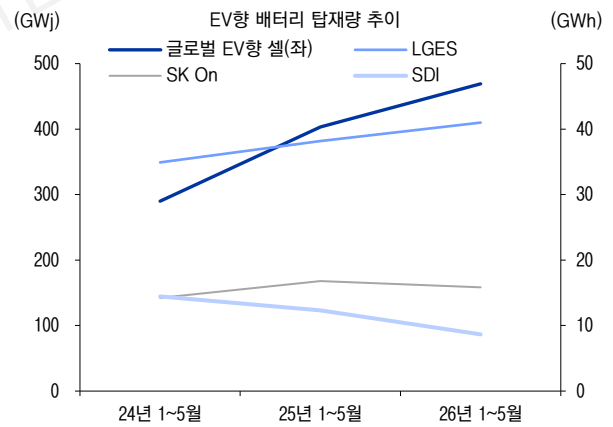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7 EV 향 배터리 판매 추이: 글로벌 vs 한국 3사(연간)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8 EV 향 배터리 판매 추이: 글로벌 vs 한국 3사(1~5월)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정경희).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에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단계	<b>Overweight</b> (비중확대) <b>Neutral</b> (중립) <b>Underweight</b>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단계	<b>Buy</b> (매수) <b>Hold</b> (보유) <b>Sell</b> (매도) <b>합계</b>	+15% 이상 기대 -15% ~ +15% -15% 이하 기대	90.3% 9.7%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준 ±15%로 변경
				<b>100.0%</b>	투자의견 비율은 2025. 7. 1 ~ 2026. 6. 30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